베트남 투자뉴스 제733호

2020년 12월 07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투자뉴스 제733호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 입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첨부파일 **(PDF, WORD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33호 (12월 07일자)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 미국,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 로이터: 폭스콘, 일부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중
- 베트남 호텔업계, 올 4분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
- 베트남 총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위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일시 중단 지시
-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ACTS) 공식 출범
- 베트남 정부, 공공투자에 박차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 베트남 약국 프랜차이즈 및 제약업계 동향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 금주의 통관 Q&A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 2020년 11월 13일 업데이트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미국,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한 일부 폴리에스테르 원사(POLYESTER TEXTURED YARN, PTY)에 대해 반덤핑 의혹을 갖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베트남 산업부 무역구제청 (THE TRADE REMEDIES AUTHORITY)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실)에 대한 54.13%의 반덤핑 마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 밝힘.- 이와 더불어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26.07%), 말레이시아(75.13%), 태국(54.13%)산 폴리에스테르 원사 반덤핑 마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예정임.

조사에서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미국 산업에 물질·산업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을 받으면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혐의 국가에 반덤핑 금지 세액을 부과할 방침이며 2021년 4월에 예비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임.

[VIETNAMNET, 11.26.]

로이터: 폭스콘, 일부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중

로이터 통신은 폭스콘이 중국에서 일부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 중이라고 보도함. 폭스콘의 베트남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 라인은 2021년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알려짐. 폭스콘은 이번주 초 2억 7,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한 바 있음. 폭스콘 측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 관련 전문가는 이 투자비용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 추정함. PHONEARENA.COM은 일부 에어팟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에는 3세대 에어팟이 출시될 것으로 전함. ENGADGET.COM 은 폭스콘이 애플 제품의 생산 기지를 부분적으로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무역 전쟁이 악화 될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힘.

[VIETNAMNET, 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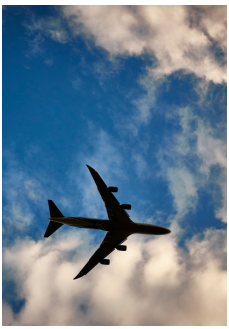
베트남 호텔업계, 올 4분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

하노이, 호치민 뿐 아니라 다낭, 나트랑, 붕따우, 뀌년, 푸꿕등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관광도시에서는 매일 수십 개의 호텔이 매물로 나오는 중임. 지난 7월에 발생했던 다낭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해 베트남의 관광업계는 다시 큰 타격을 입음. 사빌스의 호텔 분야 보고서는 올 상반기 하노이와 호치민의 호텔 수익이 2019년 하반기 대비 각각 56%, 64% 감소 했으며, 올 상반기 베트남 전역의 평균 호텔 수익은 2019년 하반기 대비 55% 하락 했다고 보고함.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2020년 4분기 호텔산업의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함. 일부 호텔 소유주들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호텔 매각을 시도하나,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타격을 입는 와중에 위험을 감수하고 호텔을 구매할 투자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호텔 매각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짐.

[VIETNAMNEWS 12.01.]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총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위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일시 중단 지시



11월 30일, 호치민에서 89일만에 지역사회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푹 총리는 12월1일 부터 국제선 항공기 입국을 잠정 중단 하라고 지시함. 단 베트남 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특별기는 운항이 가능하며, 모든 입국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4일 강제 격리를 해야 함. 호치민 보건국은 11월 30일 발생한 1342번 확진자 관련, 1347, 1348, 1349번 등 3건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힘. 호치민시 보건국장인 응우옌 탄 빈은 1342번 확진자가 베트남의 자체 격리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항공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전함. 이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 접촉이 불가한 규정을 어기고 격리 중이던 직장 동료, 1325번 확진자를 접촉함. 결과적으로 1342번은 11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25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푹 총리는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엄중 처벌 할 것을 지시함.

[VNEXPRESS, 12.01.]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 (ACTS) 공식 출범

11월 30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 기업이 전자통관 신고서를 직접 제출 하게 함으로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 (ACTS)가 공식적으로 실시됨. 그동안 ACTS는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파일럿으로 운영된 바 있음. 이 시스템은
곧 미얀마로 확장되며 수요에 따라 향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확장 될 가능성이 있음. 10월 23일-24일 태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운송 트럭이 성공적으로 ACTS를 통해 간이 통관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됨. 물품을 운송업체는 반복적으로 각 국경에서 세관신고를 하거나 차량을 변경할 필요 없이 여러 국가의 상품 운송을 일원화 하여 단일 세관신고를 함으로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으로 인해 ASEAN의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 전함.

[NHAN DAN, 12.02]

베트남 정부, 공공투자에 박차

베트남은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투자에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 국회는 약 6%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2021년 공공투자 활성화 계획을 채택함. 이에 따라 내년 주정부는 올해 계획보다 1.4% 증가한207억 500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이 경우, 중앙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하고, 지방예산은 전년대비 1.9% 증가함. 정부 예산 중 6억9565만달러는 공공투자 사업에 지출 될 예정이며, 그 외에 남북 고속도로 건설사업 (6억5382만 달러), 롱탄 국제공항 토지보상 및 재정착 사업 (2억2260만 달러), 해안 도로 개발 (1억2174만 달러)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2억434만 달러를 지출 할 예정으로 알려짐. 기획 투자부 부총리 쩐 꾸옥 프엉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공공투자를 가속화 하는 것이 경제를 부양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6%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 이라고 전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2.04.]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의 약국 프랜차이즈 및 제약업계 동향

원문을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 **맥주 생산업체 간 시장 점유율 경쟁 예상**
- **주류 광고 및 음주 규제강화와 코로나19로 당분간 성장 둔화 예상**

베트남의 제약산업 시장 동향

BMI는 베트남의 제약 산업 시장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크게 성장해왔으며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칸타르월드패널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베트남 약국의 총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4-16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국의 매출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은 마스크나 손 세정제등의 개인 위생용품 매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제약사의 주력 사업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일반의약품 VS 전문의약품

베트남에서는 최근 의약품 영업 이익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인구 증대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 인구가 증가하고,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제품이다. 베트남 인들은 병원에 가기 보다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익숙한 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복잡한 의약품 유통 시스템

의약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구분되는 다른 나라의 제약시장과 달리 베트남의 제약 유통체계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훨씬 복잡하다. 도매상, 소매상, 불법 수입 의약품 유통업자, 온라인 판매자 등 베트남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이 존재하며 정부가 이를 모두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FPTS증권의 제약 보고서는 베트남의 제약 업계는 수 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으며 유통망이 너무 많은 이유로 시장 가격 규제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고한 바 있다. 최종소비자(환자 혹은 의약품 구매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기 까지 수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수입의약품은 해외에 비해 더욱 비싼 편이다.

다채롭게 성장하는 국내외 약국체인

베트남의 약국 프랜차이즈 분야는 수십 년 전부터 발달했으나 기존에는 느린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수년간 유통소매 대기업들이 진출하며 급성장 했다. 지방 약국 소매 시장은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오지는 않은 실정이다.

약국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제약 유통업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강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국내 제약 유통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소매업 출신 대형 약국 체인점들은 제약 유통 산업의 면모를 변화시킬 것이며, 곧 일반의약품 유통 채널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베트남의 지역별 맥주 생산 공장 현황

자료: Pomegranate, FPTS Research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시사점

베트남은 WTO와의 서약을 기초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해외에 개방하지 않은 상태이다. FDI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 해외 법인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해외 제약업체들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선택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시행령 54/2017/ND-CP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부 제약사항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수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는 창고 및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이 포함된다. 한국의 제약회사들 역시 베트남 현지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 생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 또는 해외에서 생산된 약품을 베트남 현지에 유통할 경우 현행법상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지 도매업자에게 유통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TA관련 Q&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원산지 활용

Q :RCEP가 서명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A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30%와 세계 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15개국이 체결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메가FTA로 향후 우리경제와 교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RCEP는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역내국가 간 원산지 누적이 가능하여 회원국 간의 연결공정에 따른 제품생산이 늘고 교역량도 동반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산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하는 등을 이유로, 원가 절감과 FTA 관세절감을 저울질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그 전체 공정이 역내 원산지 누적으로 인정되므로 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조달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침과 규정은 추후 각 국 관세법률에 따라서 정비되겠으나, 사전에 FTA 원산지 결정기준과 양허 스케줄을 확인하여 역내국가 간 연결공정을 준비한다면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주 요 경 제 지 표

2020년 11월 13일 기준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10.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0.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8,934	70,384	528	1,101	3,422
일 본	4,610	59,896	226	472	1,783
싱가포르	2,588	55,723	197	5,381	7,507
대 만	2,774	33,324	102	935	1,420
버진아일랜드(영)	864	22,175	24	256	799
홍 콩	1,918	25,001	179	909	1,374
중 국	3,087	18,129	294	1,341	2,169
말레이시아	642	12,806	27	58	188
태 국	591	12,503	29	192	1,710
네덜란드	369	10,498	27	205	806
미 국	1,065	9,392	78	70	235
전체 합계	32,777	379,920	2,100	11,661	23,481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구분		2020. 10.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0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042	223,620	653	5,122	10,740
2	부동산경영	934	59,878	63	714	3,460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47	28,368	15	4,799	4,816
4	호텔, 외식서비스	889	12,475	51	64	280
5	건설	1,749	10,681	71	233	549
6	도소매,유지보수	5,103	8,393	598	379	1,384
7	물류운수	866	5,219	47	54	467
8	채광	108	4,898	1	0.41	6
9	교육, 양성	574	4,403	48	16	91
10	정보통신	2,309	3,947	181	33	228
11	농,임,수산	501	3,662	9	91	183
12	예술 오락	140	3,393	5	3	5
13	기술과학전문	3,478	3,626	293	124	900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79	2,865	3	6	3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5	1,991	8	4	21
16	행정, 지원 서비스	476	990	45	17	33
17	기타서비스	144	810	3	0.42	5
18	금융, 은행, 보험	77	753	6	0.29	282
19	기타산업					
합계		32,777	379,980	2,100	11,661	23,481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요 경 제 지 표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0
1	미 국	38,464	41,608	47,526	61,347	62,364
2	중 국	21,970	35,463	41,268	41,414	37,946
3	일 본	14,677	16,841	18,851	20,413	15,739
4	**한 국**	**11,419**	**14,823**	**18,205**	**19,720**	**16,096**
5	홍 콩	6,091	7,583	7,955	7,156	8,395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5,700
7	독 일	5,959	6,364	6,869	6,555	5,527
8	인 도	2,688	3,756	6,542	6,674	4,339
9	영 국	4,899	5,424	5,776	5,758	4,136
10	태 국	3,693	4,786	5,494	5,272	4,057
	기 타	60,068	77,115	79,161	82,999	65,495
	합 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229,794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0
1	중 국	49,930	58,229	65,438	75,452	65,615
2	**한 국**	**32,034**	**46,734**	**47,497**	**46,935**	**37,471**
3	일 본	15,034	16,592	19,011	19,526	16,552
4	대 만	11,221	12,707	13,228	15,173	13,528
5	미 국	8,708	9,203	12,753	14,365	11,429
6	태 국	8,796	10,495	12,023	11,656	8,776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5,427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4,273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3,026
10	인 도	2,746	3,940	4,147	4,538	3,687
	기 타	31,999	38,395	46,523	48,341	40,515
	합 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210,299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7	2018	2019	2020.10
수 출	2,137.7	2,447.2	2,634.5	2,292.7
수 입	2,111.0	2,375.1	2,535.0	2,105.5
무역수지	26.7	72.1	99.5	18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1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42,038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24,763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36,19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20,991
신발류	14,637	16,297	18,299	13,380
수산물	8,353	8,831	8,572	6,875
목제품	7,604	8,855	10,526	9,640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7,279
철강제품	3,100	4,558	4,160	2,486
채소	3,517	3,822	3,764	2,721
기 타	59,912	67,951	71,337	62,902
합 계	213,770	244,723	263,451	**229,2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10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51,2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29,76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12,635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9,531
철강제품	9,100	9,896	9,485	3,666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6,701
유류제품	7,006	7,614	1,047	905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4,845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5,876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4,367
기 타	72,551	86,801	98.960	80,977
합 계	211,096	237,512	253,508	**210,55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09
수 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34,269(-4.9)
수 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18,629

자료원 :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8,537(-0.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5,818(1.1)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2,648(20.5)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1,619(-4.8)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886(-35.6)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1,140(-6.4)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837(-9.3)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592(-17.4)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797(-8.5)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722(-3.7)
기 타	12,676	18,808	15,874	16,187	10,673
합 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34,269(-4.9)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4,081(-5.8)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2,416(-14.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824(-17.4)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803(1.3)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464(-7.7)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847(66.0)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343(-2.9)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410(14.5)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445(29.9)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298(10.0)
기 타	4,066	5,279	6,197	6,330	4,709
합 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